

## 4. Becoming Active as Consumers and Sellers

## Understanding the Sharing Economy

The sharing economy is an economic system based on sharing assets or services, for free or for a fee, directly from and between individuals. <sup>1)</sup> [Named/Naming] in 2011 by TIME Magazine as one of the 10 <sup>2)</sup> [idea/ideas] that would change the world, the economic model is now <sup>3)</sup> [transforming/transform] the landscape of the world economy. There are five key concepts of the sharing economy. Here you can read about them, along with <sup>4)</sup> [appropriate/appropriately] case stories casting light on what the sharing economy is and <sup>5)</sup> [what/how] it works.

## The Internet Made All the Difference

Two young men in San Francisco <sup>6)</sup> [was/were] so poor they <sup>7)</sup> [could/can] not pay their rent, so they thought to rent out three air mattresses on their floor to people and <sup>8)</sup> [served/serve] them breakfast. They made a simple website to <sup>9)</sup> [promote/promoting] their little bed and breakfast, and three people showed up, each <sup>10)</sup> [pay/paying] \$80. After the guests left, they thought this could be a big idea. Now their website offers 250,000 rooms in 30,000 cities in 192 countries. <sup>11)</sup> [That/What] they started was a whole new business model <sup>12)</sup> [provide/providing] a platform for the sharing economy.

The advance of technology brought sharing into economy. Thanks to the Internet and digital technology, now there is <sup>13)</sup> [very/much] more data about people and things, <sup>14)</sup> [that/which] <sup>15)</sup> [make/makes] sharing cheaper and easier than ever.

## 공유경제 이해하기

공유경제는 무료로 혹은 요금을 지불하고 개인들 사이에서 직접 자산이나 서비스를 공유하는데 근거한 경제 체제이다. 2011년에 타임지에 의해 세계를 변화시킬 열가지 생각 중의 하나로 지명된 이 경제적 모델은 이제 세계 경제의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공유경제에는 다섯 가지의 핵심 개념들이 있다. 여기서는 핵심 개념에 적절한 일화를 곁들여 공유경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주는 글을 읽게 된다.

인터넷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두 청년은 너무 가난해서 방세를 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방바닥에 세 개의 에어 매트리스를 깔고 사람들에게 빌려준 후에 아침 식사를 제공할 생각을 해냈다. 그들은 그 작은 숙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세 사람이 각각 80달러를 지불했다. 손님들이 떠나고 나서 그들은 이것이 대단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현재 그들의 웹사이트는 192개국 30000개 도시에서 250,000개의 방을 공급하고 있다.

그들이 시작한 것은 공유 경제의 형태를 제공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이었다.

기술의 발전은 경제에 공유를 가져왔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덕분에 이제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있고 이로 인해 공유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저렴하고 쉬워지고 있다.

You were able to <sup>16)</sup>[renting/rent] a private room before the Internet, but it was usually more trouble than it was worth. For example, <sup>17)</sup> [with/without] the Internet, how can you know that somebody has a spare room to your taste in a simple family house? Now, finding a room and booking it is simply a click away. All you need to do <sup>18)</sup>[are/is] to download an app. The website deals with all the rest, locating the right space and dealing with safety issues, reservations, and payment.

#### Access Is As Good As Ownership

Hyeonwoo needed to install a new lighting fixture on his ceiling, but a power drill was too expensive <sup>19)</sup>[for/to] buy only for the occasion. In Hyeonwoo's neighborhood, however, there lived someone that had a power drill but hadn't <sup>20)</sup>[need/needed] to use it for a long while. A sharing website <sup>21)</sup>[what/that] <sup>22)</sup>[match/matches] owners and borrowers in the same area connected the two of them. Hyeonwoo could <sup>23)</sup> [lend/borrow] a power drill from his neighbor, <sup>24)</sup>[pay/paying] a reasonable fee for using it. Without the service, Hyeonwoo would have had no choice but to buy the expensive tool. Now you can access what you need, even when you don't own it, all thanks to the sharing economy. Why pay a lot of money for something when you can rent it more <sup>25)</sup>[cheaply/cheap] from other people online? Why own something when you can have access to it without <sup>26)</sup>[own/owning] it? That is the principle behind a sharing economy that enables people to share cars, accommodations, and other items because now they can get whatever they need whenever they want.

인터넷 이전에도 개인의 방을 빌릴 수 있었지만 보통 그 가치보다 더 큰 고생이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없다면 누군가 작은 가족의 주택에 당신의 취향에 꼭 맞는 여분의 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지금은 방을 찾고 예약 하는 것이 간단하게 클릭 한번으로 해결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어플을 다운로드하는 것 뿐이다. 웹사이트가 적당한 공간을 찾아내고 안전문제, 예약과 지불을 처리하면서 다른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해준다.

접근은 소유와 같다.

현우는 천정에 새로운 조명을 설치해야 했지만, 한번만 쓰기에 전동 드릴을 너무나 비쌌다. 그러나 현우의 이웃은 전동 드릴을 갖고 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같은 지역의 소유자와 빌리는 사람을 매칭해주는 공유 웹사이트가 두 사람을 연결해 주었다. 현우는 합리적인 사용료를 내고 이웃에게 전동 드릴을 빌릴 수 있었다. 만약 그 서비스가 없었다면, 현우는 값비싼 연장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공유 경제 덕분에 심지어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필요한 것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싸게 빌릴 수 있는데 왜 많은 돈을 지불하려고 하겠는가? 소유하지 않고도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왜 무엇인가를 소유하는가? 이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차, 숙소와 다른 물건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공유경제 배후의 원칙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언제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The business model of a sharing economy instantly connects owners of underused assets with others willing to pay to use them. Easy access, made possible by Internet technology, is now as good as ownership.

#### Produce Less, and You Will Waste Less

Seonwha is a computer programmer who works mostly at home but sometimes goes to the office to have meetings. She doesn't own a car, but rents one through a sharing platform <sup>27)</sup>[whatever/whenever] she needs a ride to work. But for the sharing service, one more car would be made only to stay still in her garage most of the time. In order to use her car more often, she would drive to places <sup>28)</sup>[when/where] she usually goes on foot now. She thinks the sharing economy contributes to <sup>29)</sup>[save/saving] the environment since less car use means reduced CO2 emissions

Though not primarily <sup>30)</sup>[driving/driven] by environmental goals, the sharing economy brings considerable benefits to the environment. Resources are used more efficiently, <sup>31)</sup>[what/which] helps save on materials and energy. For example, car sharing services are proven to yield environmentally friendly results. Studies have found that car sharing helped reduce CO2 emissions significantly. What the sharing economy aspires to <sup>32)</sup>[is/are] a more sustainable way of utilizing limited resources.

#### Experience Matters, Not Possession

Jimmy had newly decorated his room and wanted a piece of artwork that fit into the space. Through a website sharing works of art, he picked an artwork to his taste from a wide variety of artists and rented it monthly.

공유 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소유자들을 기꺼이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다른 사람들과 즉각 연결해준다. 인터넷의 기술로 인해 가능한 쉬운 접근은 이제 소유권과 다를 바가 없다.

적게 생산하라, 그러면 낭비도 줄어들 것이다.

선화는 대부분 집에서 일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지만 가끔은 회의를 하러 사무실에 간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직장까지 차를 타고 가야할 때마다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차를 빌린다. 만약 공유 서비스가 없다면, 차 한 대가 제작되지만 결국 그녀의 차고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서 있을 것이다. 자신의 차를 더 자주 이용하기 위해서 그녀는 지금 걸어 다니는 곳까지도 차를 타고 다녔을 것이다. 그녀는 차를 덜 사용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유경제가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주로 환경을 위한 목표로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 경제는 환경에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준다. 자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이것은 자재와 에너지를 아끼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환경에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공유 시스템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당량 줄여준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공유경제의 목표는 제한된 자원을 보다 더 유지 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소유보다 경험이 중요하다.

지미는 자신의 방을 새로 꾸몄고 그 공간에 어울리는 예술작품을 원했다. 예술작품을 공유하는 웹사이트에서 그는 매달 다양한 예술가들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골라 빌렸다.

When he paints his room a different color, he can return the current piece and rent another. He is not interested in permanent ownership of particular artworks. He simply wants to enjoy art in his daily life.

Studies show <sup>33)</sup>[what/that] experience increases satisfaction far more than acquisitions do, and the new generation that <sup>34)</sup>[embrace/embraces] the sharing economy understands it better. For instance, art lovers used to find satisfaction in collecting artworks. Now they have <sup>35)</sup>[began/begun] to place value on the experience of enjoying them. There are many who appreciate artworks, but have no interest in owning them for good. This benefits the artists as well because they get a monthly income for their artworks that otherwise might be in storage or waiting for their next exhibition. The sharing economy is the experience economy. It is a powerful cultural trend in <sup>36)</sup>[that/which] people value experiences more than possessions.

#### People Build Trust and Make Connections

Stella is a retired designer <sup>37)</sup>[whom/who] started a second life as a host to international travelers. When her husband passed away, she came down with depression. She started to share the room her husband <sup>38)</sup>[use/used] to occupy. Meeting new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helped her recover from her grief. Now she enjoys telling her guests stories about the neighborhood and preparing them delicious local breakfasts, trying to make them <sup>39)</sup>[feel/feeling] at home. She has made friends with many guests and stays in touch with some of them.

그가 다른 색깔로 방을 칠하게 되면 그는 현재의 예술작품을 반납하고 다른 작품을 빌릴 수 있다. 그는 특정 작품의 영구적인 소유권에 관심이 없다. 그는 단지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고 싶을 뿐이다.


연구들은 경험이 획득물보다 훨씬 더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공유경제를 포용하는 새로운 세대는 그것을 더 잘 이해한다. 예를 들어 미술 애호가들은 작품을 수집하는 것에서 만족을 찾고는 했다. 이제 그들은 예술작품을 즐기는 경험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도 그것을 소유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는 화가들에게도 이득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거나 다음 전시회를 기다리고 있을 작품들로 매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의 경제는 경험의 경제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소유보다 경험을 더 값지게 생각하는 강한 문화적 경향이다.

사람들이 신뢰를 쌓고 서로 연결된다.

스텔라는 국제 여행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트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은퇴한 디자이너이다. 남편이 죽었을 때 그녀는 우울증에 걸렸었다. 그녀는 남편이 쓰던 방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온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그녀의 슬픔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손님들에게 이웃의 이야기를 해주고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고 자기 집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즐긴다. 그녀는 많은 손님들과 친구가 되었고 몇몇과는 연락을 하고 있다.

For sociable souls, meeting new people is a big part of the charm. In the age of “virtual” everything, more and more things are possible 40) [with/without] ever meeting face to face with other people. But sharing assumes human interaction by its definition and appeals to the basic human needs for community. The core of a sharing economy 41)[is/are] people directly dealing with each other, so trust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s essential. Social network services play an important role, 42) [give/giving] information on participants. Safety issues are important when dealing with strangers. Along with the background checks carried out by platform providers, online reviews and ratings are usually 43) [posting/posted] by both parties. The remarkable thing is how 44) [good/well] the system usually works.

사교적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매력적인 부분이다. 모든 것이 가상인 시대에 다른 사람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공유한다는 것은 정의상 인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기본적인 인간의 공동체 욕구에 호소한다. 공유경제의 핵심은 서로 직접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며 관련된 당사자들간의 신뢰는 필수적이다. SNS는 참여자들에게 대한 정보를 주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낯선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에는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 플랫폼 제공자들이 시행하는 배경에 대한 확인과 함께 온라인 리뷰와 평과는 보통 양측에 의해 올려진다. 주목할 점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에 관한 것이다.

	<p>◇「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에 의한 표시</p> <p>1) 제작연월일 : 2018년 00월 00일</p> <p>2) 제작자 : 교육지대㈜</p> <p>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p>
<p>◇「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p>	
<p><b>정답</b></p>	

- 1) [정답] Named
- 2) [정답] ideas
- 3) [정답] transforming
- 4) [정답] appropriate
- 5) [정답] how
- 6) [정답] were
- 7) [정답] could
- 8) [정답] serve
- 9) [정답] promote
- 10) [정답] paying
- 11) [정답] what
- 12) [정답] providing
- 13) [정답] much
- 14) [정답] which
- 15) [정답] makes
- 16) [정답] rent
- 17) [정답] without
- 18) [정답] is
- 19) [정답] to
- 20) [정답] needed
- 21) [정답] that
- 22) [정답] matches
- 23) [정답] borrow
- 24) [정답] paying
- 25) [정답] cheaply

- 26) [정답] owning
- 27) [정답] whenever
- 28) [정답] where
- 29) [정답] saving
- 30) [정답] driven
- 31) [정답] which
- 32) [정답] is
- 33) [정답] that
- 34) [정답] embraces
- 35) [정답] begun
- 36) [정답] which
- 37) [정답] who
- 38) [정답] used
- 39) [정답] feel
- 40) [정답] without
- 41) [정답] is
- 42) [정답] giving
- 43) [정답] posted
- 44) [정답] well